

같이 보기

: 2022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

# 산업안전보건의 다음 단계를 ————— 향하여

## ‘ESG 경영과 안전보건’ 세미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와 함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지속가능한 삶과 한 단계 더 향상된 안전보건에 대한 방향 제시를 위해 '2022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기간 동안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주최로 'ESG 경영과 안전보건'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글 편집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인 7월 4일부터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2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과 안전보건을 접목하여 ‘ESG 경영과 안전보건’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박영수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안중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축사와 기념 촬영을 거쳐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의 조기홍 실장이 좌장을 맡아 연제발표 및 토론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민구 리브릿지 대표는 ‘ESG 경영과 평가체계’라는 주제로 국내외 ESG 발전 동향을 살펴보고, 뉴욕대학교 스티븐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 논문을 통해 투자자가 선도 기업을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사회부문 평가 지표의 문제점을 알아본 후, 국제노동자연합(CWC)에서 제시한 사회부문 성과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침과 가이드를 안전보건 부문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66

ESG 중에서도 S(소셜) 분야에서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목표와 성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향후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ESG 경영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지에 대하여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99

이어진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SK하이닉스의 이세영 박사가 ‘기업의 ESG 경영과 S 활용사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ESG 용어의 태동부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ESG 경영 트렌드를 짚고, ESG 경영의 중요성을 국내외 기업의 ESG 경영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특히 ESG 중에서도 S(소셜) 분야에서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목표와 성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향후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ESG 경영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지에 대하여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조기홍 실장의 진행에 따라 전민구 대표, 이세영 박사와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의 본부장, 이준국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김승호 안전문화포럼 회장이 토론에 나섰다. ESG 경영과 안전보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들 역시 다양한 질문을 통해 평소 ESG 경영과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함께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안중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100여 명의 일반 참석자들이 함께 세미나를 참관하여 ESG 경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성황리에 마쳤다. ☺